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에 대한 종무총장 코멘트

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소폭탄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.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,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또 서로 비난을 부채질하고 대립이 깊어져, 세계가 더 혼미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

핵무장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. 그것은 생명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며, 국제 사회와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.

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우리 일본은 스스로 각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의 길을 걸었습니다. 군사적 위협과 전쟁 행위가 초래하는 것은 파멸이며, 민중이 바로 그 희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.

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과거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계 각국이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지평에 서서,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함께 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2017 년 9 월 5 일

신슈 오타니파(히가시혼간지) 종무총장 다지마 히로시(但馬 弘)